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헌금** 기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강영성(신화순), 공인석(김명숙), 김길자, 김병율(이영숙), 김순석(임영숙), 김종진(한나나), 김춘화, 문영원(이명숙), 박복래, 방현숙(신영신), 윤정호(유옥자), 이상선, 이종문, 이한웅(김순자), 이호준(안금자), 임만순(서영숙), 임현희, 장영원(김옥자), 정영심, 조규영, 재희훈(황영숙), 최성현(윤정자), 황성진(홍금숙).(총24명)

♣ **선교헌금** 기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윤희진(최유경), 강봉석, 강영성(신화순), 공인석(김명숙), 김경엽, 김기택(배숙자), 김길자, 김병율(이영숙), 김성옥, 김순석(임영숙), 김춘화, 김희규, 문영원(이명숙), 박복래, 박영식, 방현숙(신영신), 배경철(김순화), 성미영, 손정아, 안금자, 윤영준(박진숙), 이선미, 이종문, 장영원(김옥자), 정영심, 현동건, 권사희, 베드로반전도회).(총28명)

♣ **감사헌금**

윤희진, 이필례, 김누리한(이송이), 김병율(이영숙), 김현구(서재희), 민옥희, 박부용(최기남), 박순자, 방현숙, 석애자, 석형기(이희순B), 송형기(김현숙), 유은자, 이기자, 이순례, 이옥남, 이월숙, 이민숙, 이태훈, 이창교, 장은주, 권순봉, 전영선, 정영심, 채명섭, 최기훈(정계숙), 황영숙, 무 명, 한공순.(총28명)

♣ **일천번제헌금**

이진우, 이필례, 김민성, 김수현, 김정훈, 김준현, 김지훈, 김춘화, 민옥희, 박은숙, 박희영, 방복순, 배병찬, 백경자, 서재희, 송백현, 신지현, 신현진, 심순화, 안지영, 양영옥, 이강우, 이경자, 이기자, 이미영, 이옥남, 이민숙, 정옥순, 주성환, 최기남, 최봉순, 최선미, 황영옥, 양일석, 이노을, 무 명.(총35명)

주간 성경연구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2015년 제34주: 잠언 4장 1절 - 8장 21절			
주 일	잠언 4장 1 - 9절		
월요일	잠언 4장 10 - 27절	목요일	잠언 6장 20 - 35절
화요일	잠언 5장 1 - 23절	금요일	잠언 7장 1 - 27절
수요일	잠언 6장 1 - 19절	토요일	잠언 8장 1 - 21절

원로장로	이태일			
시무장로	정기성 윤준준 방석대 윤병호 강영성 김병을 최기훈 윤정호 배경철 임만순			
은퇴장로	오만식 방현옥 장영원 이해석 정광식 이원가 문영원 이일로 천세혁			
교역자	부 목 사	윤희진		
	강 도 사	김성종		
	전 도 사	이필례		
	교육전도사	문수경 이송이 최유경		
찬양대	지 위 자	할 켈 루 아 : 김한나 시 온 · 에 덴 : 최원자	호 산 나 : 김한나 앤 켈 : 이난수	
	반주자	오르간	심혜윤	
		피아노	강민주 김미희 김상훈 유광희 이주하 정해지	
		클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루트	김민지	
	솔 리 스톱	김안나 박선희 고광훈		
선교사	파송선교사	태 국: 김정숙 수리남: 안석철 이성옥 이집트: 김신숙 미 국: 김다니엘 최옥희	A X 국: 김해월 A X 국: 이분득 A X 국: 박동권 김명화	
		협력선교사	태 국: 박영성 정세미 멕시코: 김홍기	태 국: 박경환 이순연 A M A : 조동진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교회		
협력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선교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소망교도소, 영등포시활화회 용정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오픈도어선교회			

2015. 8. 16 주일 예배 설교

내가 악한 그 때에 강하다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9절

설교: 이진우 목사

오늘 본문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확실한 역설적 이야기 일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것들과 능욕과 고통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악한 그 때에 강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엄청난 계시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랑을 할 때에 기뻐함이 아니라 도리어 그와는 정반대로 악할 때에 곧 육체의 가시가 그를 괴롭히고 또한 그가 과거에 그렇게 많이 겪고 당하기도 한 많은 곤난의 조건들, 곧 능욕, 고통, 핍박, 곤란 등을 기뻐한다고 하여 그러한 일을 때문에 사도바울은 “내가 악한 그 때에 강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그러한 어려움을 많이 겪을수록 그리스도의 관능이 그를 천막 치듯이 덮어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기뻐하노니”라는 헬라어는 “유도코”인데 그 뜻은 “만족하게 생각한다.” 또는 “잘 생각한다.”입니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것들과 능욕과 고통과 핍박과 곤고로 인하여 악할 때에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바울의 이 고백이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영적인 세계와 우리 육신의 세계와는 너무 다른 듯합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참 진리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역설적인 내용을 우리들에게 이야기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은 높아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높아질 때 하나님은 나를 꺾으십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그러나 내 자아가 살고 욕심이 살고 죄성이 살 때 하나님은 나를 그 모든 것으로 죽이십니다. 분명 내가 악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며, 그러나 내가 강하면 하나님은 나를 약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세상 가운데 참으로 강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으로 강하다는 것은 세상의 권세와 능력과 물질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러한 것으로 강해지나 참으로 강하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32절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니라.”고 했습니다. 용사가 강하고 성을 빼앗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니라 화법을 더디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더욱 강한 것입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기보다는 먼저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것이 진정한 강함인 것입니다. 삼손은 천하에 제일가는 장사였지만 이방 여인을 사랑하다가 후에 눈이 뽑히고 불행하게 되었으며 다윗도 천하대 제일가는 용사였지만 일시적인 음욕을 이기지 못하여 가장과 나라에 큰 불행을 몰고 왔습니다. 솔로몬은 세계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이방 여인들을 행방로 맞았다가 결국 그들로 인해 신앙의 정도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강함은 다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강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내가 약해져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도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 했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쳐서 진리가운데 복종해야 합니다. 내 모든 이론을 파하고 높아진 것을 꺾어봐 겸손히 낮아져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 했습니다.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내 생각과 고집을 죽이고, 자기의 잘난 것을 자랑하는 교만을 꺾으며 내 영광을 구하는 허영심과 욕망을 버릴 때 그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강함으로 시험과 환난을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서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건고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 르기를 원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즉 진리를 알게 됨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하여 거짓을 물리치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된 믿음의 군사 되게 하실 뿐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마태복음 22장 37~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하셨는데 우리 가운데 참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어린아이 같은 전적인 신뢰와 의지함,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이며 참 된 성도의 삶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마음을 바로 지키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세상의 모든 일을 세상에 대한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악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SINCE 1975

No. 41 - 34

2015. 8. 23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시편 80편 7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p>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p>		
<p>생수의 우물 A well of living</p>		
<p>흐르는 시내 Flowing streams</p>		
<p>[아가 4:15]</p>		
<p>다 임 목 사 Senior Pastor</p>	<p>이 진 우 Yee, Jln Woo</p>	

- 152-090 서율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 18Gyeongin-ro 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070-8658-2080
- 팩 스: 2689-1230
- 홈 페 이 지: www.sunhyeon.or.kr

순서	1부		3부		찬양예배		수요기도회
	기도	기도	성경봉독	사회	기도	기도	
8월 1주 (2일)	오백현 집사	방석대 장로	박영현 권사	임만순 장로	채만기 집사	만지영 권사	
2주 (9일)	황성연 집사	임만순 장로	이오순 권사	윤경호 장로	서영숙 권사	박지순 집사	
3주 (16일)	방원식 집사	정기성 장로	백경자 권사	정기성 장로	유승물 집사	이미영 집사	
4주 (23일)	김영훈 집사	윤조훈 장로	이미향 권사	임만순 장로	박종삼 집사	박정순 권사	
5주 (30일)	김철국 집사	방석대 장로	최봉순 권사	임만순 장로	김병삼 장로	곽복순 권사	
예배안내	정기성 윤조훈 윤병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